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표지물의 역할 및 디자인 방법 고찰
도심지역(Central Core Area)을 중심으로

강 명 옥 · 조 성 애

대구 효성 가톨릭 대학교

Content

I. 서론

도시환경의 시각적 개선 목적
시각디자인의 의의 및 도시환경 내에서의
역할

II. 본론

도시환경 디자인
환경디자인 요소로서의 표지물 디자인
· 고지용 표지물 디자인
· 상업용 광고표지물 디자인
디자인 방법론
· 전체의 기획
· 세부의 제작 : 디자인 · 기술 · 재료

III. 결론

Resoume of Reporter

강 명 옥

Kang, Myung Ok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일본 G.K Graphics 연수
한국시각정보 디자인 협회회원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
대구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
개인전
현/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교수

조 성 애

Cho, Seong Ae

홍익대, 동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University of Vtan 졸업
개인전 2회
홍익대 강사 역임
현/ 계명대학교,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강사

I. 서론

세부의 미는 전체의 미에 기여하여야 한다. 각 부분이 지닌 아름다움은 그들 자신만의 개성미를 지니고 있으나, 전체의 풍경은 압도적이며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 아름다움으로서 인간의 영혼에 안정적이며 심리적 균형을 준다.

따라서 도시시각환경은 그 도시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공중전체(The Community)의 관심을 바탕으로 촉진되거나 통제됨으로서 물리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개인에게 크고 가능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시각디자인은 시각전달을 통한 효과적 상호소통(Visual Communication)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물리적 도시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각정보 전달을 위한 기본전략은 시각전달효과의 미적계획으로써 도시환경의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하며, 인간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특정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준이 될 유효하고 객관적인 원리를 정립해보고 기본원칙의 제시 및 경제여건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에 부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도시시각디자인은 특정목적에 위한 시각구조체의 분위기 창조이다.

어떻게 놓여지고 배치하여 양감을 주고 조합시키며 연관짓는가에 대한 각 개인의 감각이나 반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적절한가에는 일반적인 선호도가 있다.

오늘날의 도시에서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것은 상

업·구매·대중교통에 의한 도심의 일련의 이어진 배치로써 거주자나 방문자의 눈에 돋보이는 것이 없고 따분하며 끝없이 즐비된 상가나 도로는 효과적 초점이 결여된 음울하고 잃어버린 느낌을 주기가 쉽다. 따라서 갖가지 요소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을 도시의 각 지역구조계획(Structure Plan)에 따라 적용시키면 편리하다

이들 구조범주는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첫째, 중심지역(Central Core Areas)

둘째, 주택지역(Residential Areas)

셋째, 산업구역(Industrial Areas)

넷째, 레크리에이션구역(Recreation Areas)

4개의 도시범주중 초점은 도심에 있으며, 중심구역으로서 가장 큰 시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공간·건물·부분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전체적 배치에 있어서 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심은 사람이 모이고 현대생활의 중심이 되는 일상의 터전이므로 구성요소들의 디자인이 적당한 변화·활기·대비가 있어야 하고 적합한 재료, 색채의 사용을 통하여 통합과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이는 조화있는 비례와 알맞은 기하학적·수학적원리가 적용된 스케일에 의해 기초작업이 될 수 있으며, 도시의 형태 및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시각적통합을 위한 기능적 계획 및 통일성을 의미하여 도시시각환경 개선의 주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과정에서 시초부터 시각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토론·심의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략적 전체 기본 배치(Diagrammatic Master Layout)는 간명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구성은 기능적 시각적

1) R.Fraser Reakie, 김동환 譯, 환경건축 도시디자인, Design in the Built Environment, 서울: 지문당 (1985) : 86~88

으로 만족스러운 전체를 낳기위해 부분이나 요소를 계획적으로 배열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인간생활의 수단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건축물, 공간, 통행로의 다양한 배열방식은 요소들의 각각의 독자적 스케일이나 성격을 반영해야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원거리·근거리 건물주위, 건물내부에서 움직일 때 실제경험을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관찰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점에서의 시각적 혼란을 피해야 한다.

무질서한 선열(線列)이나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이 없이 본질적으로 단순해야 하며 결합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공해로부터 해방하며, 추함·혼란·무질서를 제거하며, 안전·안락감을 주며, 공중전체에게 사회적·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모든 부분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시각적 만족감은 도로, 건축물, 기타 도시의 구성요소들을 필요한 정보, 배경지식 등과 함께 연관시켜야 하는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환경시각디자인(Environmental Visual Design)이라 칭하고, 적용범위를 공간상 도시에 한정시키며, 표지물의 정지적 평면디자인 즉, 2차원 평면을 대상으로 디자인 방법론을 전개코자 한다.

효율적 기능과 전체의 시각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함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 과거의 디자인과정(The Process of Design)의 숙련된 방법을 효과적으로 연구하여 물리적 완성도(Physical Implementation)를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디자인 과정의 일정부분의 수학적 적용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원리를 응용한 합리적 분석을 통한 학문적 기초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적방법은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는 실용위주의 방법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잘못된 디자인과 잘된 디자인

(Good Design)을 구별하는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사회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는 미적고안이라는 굿디자인의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며 동시에 디자인의 사회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설득수단이 될 수도 있다.

좀더 향상된 생활조건에 대한 욕구로 새로운 재료, 가공기술이 속속 등장·발전하여 디자인은 영원불변할 수 없으며, 결정에 관한 모양의 미적완성(Aesthetical Completion)을 위한 심리적 접근도 탐구되어야 한다.

이전의 형태와 장식에 대한 원형(Iconic Prototype)으로부터의 유추적 발전유형이 탐구되어야 한다.

디자인 절차에 따른 정보분석 및 선택에 있어 포괄적 안목을 지녀야 하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거대한 기술 및 정보의 해석을 제한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전 시대의 디자인 장점 및 가치있는 시각적 교훈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야 하며, 시지각의 결과인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능률적이고 쾌적한 인간생활의 조성을 위한 필요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비례의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좋은 비례는 길이, 거리, 면적, 부피간의 정밀도의 문제이고 크기와 형은 기능의 요건에 따른다.

오늘날 디자인의 비례는 임의적 법칙이 아니고, 구조적 요소들의 계획에 따르며 이때 공식에 의한 지루함은 변화있는 반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일반적 크기와 비교개념으로 사용되는 스케일은 인간의 행위와 필요에 관련되며 기준척도는 인간이다. 척도의 적절한 사용은 인체 비교측정학(Anthropometrics)이나 인간공학(Ergonomics)의 연구로 적용,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스케일상의 잘못은 디자인계획 과정중에는 쉽

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밀한 실험과 연구의 결과인 데이터에 의해 교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이나 시공의 질에 관계없이 스케일이 작거나 크면 시각적 불협화음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킨다.

디자인과정에서 기능에 관한 기초요건이 불완전하게 다루어졌을 때 디자인의 의미가 없어진다. 기능적 요건의 이행에 있어서 주된 관심은 개인들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집단이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집단들의 필요·관심·소망에 의해 결정된다. 기획과정에서 사회학자·경제학자·통계학자 등 전문가의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 일반대중의 참여에 의한 정보와 예상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인간의 치수(Dimensions), 크기(Sizes), 무게(Weights), 움직임의 범위(Range of Movement) 등을 연구하는 인체측정학은 표지판의 위치 등을 디자인하는 레이아웃(Layout) 기법에 필수불가결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치수의 한계를 정하고, 각 부분의 비례가 자료에 의한 한계내에서 산출됨이 바람직하다.

기초적인 인체측정과 더불어 기계의 도움이 있을 때 인간의 능력은 확장된다. 움직임에 의해 행동심리학이나 기타 학문·기술에 연루된 인간공학적인 비례가 고려되어야 한다.

표지물 디자인은 계획과정 초기단계부터 작은 시설물을 선택하고, 정보전달을 표현하는 디자인이다.

정보전달은 시각적 도구로써 문자, 일러스트레이션의 수단과 관계하며, 충분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보이는 것에 대한 인간반응에 시각적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작은 시설물이 더 큰 시각적 즐거움과 새로운 만족을 창조할 수 있도록 시지각 인식 및 지각발전에 대한 제분야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도심의 표지물은 건축물이나 기타 다른 구조물 못지않게 환경조각과 완벽하고 명료하며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간은 자연의 경치를 일컫는 개방된 공간(Open Spaces)와 전부 또는 일부가 둘러싸인 도시의 공간인 밀폐된 공간(Enclosed Spaces)으로 분류된다.

표지물 디자인의 적용부분은 주로 개방된 공간과 인접한 건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도심의 공간은 건물의 형식성에 따라 평면상의 형이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전개되며, 표지물 디자인은 그 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때 공간의 용도·형태·크기·수평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흥미와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정면의 표지물은 흥미(Interest)가 있어야 한다. 정면이 중요한 경우 정면과 인접한 건물간에는 좁고 오목하고 선명한 수직분할선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 선은 되도록 간단하고 단순해야 한다. 건물은 수직의 평면이고 출입구의 표지물은 에워싸는 느낌이 하나, 둘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심은 건물이 인접해 있거나 가까이 붙어 있어서 2차원적 디자인 및 수평적 연속성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련의 건축은 한쪽 끝에 수직의 특징에 의해 통일시키면 모순된 흥취 또는 이중성에 의한 시각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각 건물은 똑같이 디자인된 균일한 단위가 아니므로 표지물은 색채·텍스처·비례·스케일 등의 디자인 요소가 전체적 통일이 있어야 한다.

거리가 연속적일 때 관찰자가 거리를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원근법으로 보이는 일련의 구성이므로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공간전체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므로, 스카이라인의 혼란과 지나친 불규칙성이 야기되는 돌출은 피해야 한다.

특징물은 공간의 가장자리쪽에 배치하는 것이 시각

적 혼란을 줄일수 있다.

강조, 다양의 요소는 디자인의 형태나 장식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로의 이음매의 갈라진 틈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도로양편, 이웃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가로·차도를 기준으로 디자인할 경우 수평의 평면이므로 패턴이 건물의 디자인과 연관성이 있으면 좋고, 형태·색채·텍스처는 건물이나 기타 디자인된 구조물과 시각적 대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다.

안정감·활기 등의 심리적 배경 컨셉은 해당지역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방향의 기준은 지붕선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울동적·규칙적 층에 의해 조화로운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시각적 통일감이 수평의 기선에 의해 유지할 수 있다.

전체에 대한 부분의 배치가 무계획적으로 되어있을 때 겹침(Duplication), 장애(Obstruction), 서로가림 등의 불협화음을 유발하여 시각심리에 불안정감을 주므로 전체적통합(Total Coordination)이 책임있는 기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기본적 요소를 명시한 표준편람 및 식별의 기준, 경제적 선택의 폭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규정내용은 상황별 형태, 재료, 색채의 적절성에 바탕을 둔다.

모든 표지물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안락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물로 지각되는 표지물은 3차원적 의미의 형태(Form), 2차원적 의미의 형(Shape), 윤곽 이음새를 뜻하는 선(Line)에 의해 결정된다.

형태디자인은 기능의 효율적 배열과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디자인원리는 기능이나 구조의 명확함에 근거해야 하며, 부적절한 상호연관을

가지는 어색하고 보기좋은 비실용적인 형은 피해야 한다.

객관적인 눈은 시각적으로 산만하거나 복잡한 형태보다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더 좋아하고 만족감을 얻는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구조물은 직육면체, 정육면체, 피라미트형, 원추체, 원통형, 구체, 반구체 따위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되어있거나 이들 형태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갖가지 형태와 형태배열의 심리적 효과, 형태들의 배경 및 주위환경과의 심리적 작용에 의한 형태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법칙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된 형은 군더더기 없이 인접한 형과 정연하게 통합되어야 하며, 정연하고 형이 잘 짜여진 부분들(Well-Shaped Pieces)로서 각각은 전체의 효과에 순조롭게 기여할 수 있다.

어떤 특징의 심리적 기능이 필요한 경우 해당형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형의 감정적 효과를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스케일의 형을 이용해 강조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길이나 패턴에 의한 방향유도도 가능하다.

역으로 이러한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 계획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윤곽을 결정하거나 디자인의 방향성을 주기위한 선은 시각적효과를 위하여 적당히 강하게 하거나 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조적 기능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선을 첨가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특히, 사선은 형태와 구조에 명확히 연관되어 있지 않을 때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교차선은 포인트를 만들어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자인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긴장감을 줄 수 있다.

표지물은 순수한 시각정보용(Visual Information)용

과 상업 광고용(Commercial Advertisement)으로 크게 구분되며, 디자인의 성격은 제조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료와 기술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정부고지용 표지물은 표준 유형으로부터 선정되어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디자인 되어야 효율적이고 가시효과가 크다.

문자디자인의 가독성과 관련 심벌의 크기, 색채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정지, 위험 교통신호 등의 경고표지를 포함하는 경우 문자를 특별히 디자인할 필요없이 인지도·가독성이 높은 표준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면 즉각적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크기·배열·색채에 따른 가독성, 주제와 적합한 형태, 재료와 조명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의 칫수와 크기, 시각유도방향의 통일 등 디자인원리를 잘 응용하여 시각적 혼돈과 주의산만에 의한 위험한 결과를 줄일수 있으며, 서로 연관있는 표지판들은 공동설치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독립적으로 설치될 경우 도로나 기타 지면의 요소들과 시각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벽이나 건물에 부착되는 경우 건축디자인의 일부가 되므로 건축디자인에 준거해야 좋다.

표준적 디자인의 불가피한 반복은 유형의 수와 성분의 크기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각적 천편 일률성을 지닐 수 있으며, 이로인한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변화있는 보완책으로 표준형의 응용, 수직수평단위의 변화 등을 전체계획(Master Planning Control) 아래서 질서있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상업용 광고표지물은 게시판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다. 보기 좋고 잘 디자인된 표지물이 적소에 배치되었을 때 지루한 도시환경에 흥미와 활기를 더할 수 있다.

광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최대한의 돋보임과 주의

집중을 우선으로 할 수도 있으나, 무분별하게 디자인된 광고물은 추하고 어수선하며 난잡한 시각적 인상으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친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은 전체디자인에 종속되어야 하며, 건물의 형태와 시각적 충돌을 피하고 정보전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정하게 게시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물의 한계는 건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조건에 적합한 유형이 선택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돋보이는 단하나의 광고물은 시각적 저항감이나 혼란을 초래한다. 너무 낮은데까지 내려있지 말고 규칙적이고 명료한 문자디자인과 적절한 색채를 선택하며, 색광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교통신호와 혼동되어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명이 된 광고물은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중앙에 있지 않는 것이 좋다.

변화와 전환의 시대인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새롭고 복잡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형태와 외관의 토대가 되는 구조적 시스템과 공법을 알아야 기능적 요건을 물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역으로 그 요건들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디자인의 변화는 공법이 발달함으로 영역이 확대되며, 디자이너는 그 불가피한 변화를 인식하여 개척해 나가야 한다. 디자인의 큰 가능성은 시공기술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어 토달디자인에 통합되어야 기능·구조·외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각 분야의 협조적 전문화로 논리적 디자인과정과 원리를 재정립하고 인식하며 수용하여야 한다.

논리적 과정을 통해 제안된 원리들은 기능적 요건과 시공의 가능성 및 한계를 결정짓는 지배적 조건이 된다. 새로운 재료, 마무리제는 사인물의 외부형태와 면의 겉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회수, 성분선택, 상세한 도면작성을 위한 기호화, 컴퓨터의 효과적 활용 등으로 인한 새로운 발명과 발견들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III. 결론

환경조직의 일부로서 도시표지물 디자인은 도시환경과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명료하고 쉽사리 알아 볼 수 있는 시각정보전달의 주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의 일부로서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고도의 질서성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에 제시한 이상적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능적 계획의 요건이나 시공방법의 불가피한 변경이 참작된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도시환경의 시각적 요건에 대한 감각, 이해력, 기술적원리의 합리적 터득에 기초한 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실험의 자유를 위해 개인적 특이성을 무책임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장에서 실험의 폭을 넓혀서 시안을 제시 해 봄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실무작업 현장에서는 기능용도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질서성, 연결부·연속부의 조화성, 스케일과 분위기에 대한 인간적·심리적 합의, 디테일의 특징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반성적 합의하에 심의되어야 시공과정 중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시공후의 도시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목적인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조재경(1993), "산업디자인 정책진단과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62집 2호(이화여자대학교)(1981), 「조형 논총」, 제1집(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 연구소)

외국 문헌

- R. Fraser Reekie(1985), 「환경건축·도시디자인 DESIGN IN THE BUILT ENVIRONMENT」 전동훈 번역, 서울:지문당
- Nisijawa T(1984), 「외부환경디자인, STREET FURNITURE」, 이범재 번역, 서울:지문당
- Grant W Reid(1992), 「풍경구성과 연출, 왜 거리는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가?」 이제화·임원현·김동필 번역, 서울:대우출판사

